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

제11차 INKE 정기이사회 · 제6차 정기총회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으로 도약



I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는 지난 10월 14일 코엑스 아셈홀에서 제11차 정기이사회 및 제6차 정기총회를 갖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남민우 의장과 협회 조현정 회장을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47명의 국내의 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이번 이사회에 대한 임직원들의 열의를 실감케 했다.

22명의 해외지부 의장을 포함한 국내의 임원들은 3시간여의 토의과정을 거쳐 2006년도 사업계획의 틀을 짰다. 이날 이사회는 우선 3가지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인도 뉴델리지부의 교체 및 새 의장 선출에 대한 건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김원철 후보가 의장으로 임명됐다.

주요 안건인 2006년도 INKE Spring 개최지 선정에서는 멕시코 멕시코

시티,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연길에 경합을 벌인 가운데 러시아 모스크바가 최종 낙점됐다. 또 해외지부의 위상 강화 및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Delegation 방한 상담회' 개최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개최 의향이 있는 지부는 내년 2월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위주로 Delegation(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밖에 게릴라사업 추진, 해외지부 회원 디렉토리 제작, 웹사이트 기능 개선, 브로슈어 제작, CI변경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특히 INKE는 2006년까지 해외지부 수를 45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지부설립이 미비했던 중동(시리아, 알제리, 이라크, 이집트), 동유럽(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아프리카(나이지리아, 가나, 남아프리카) 지역 신규지부 설립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것이다. 현지 한인 수를 고려해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활동이 미진한 국가들을 적극 추천하고 우량기업인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해외기업 글로벌네트워크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세계 화교인들의 모임인 세계중화총상회, 전 세계적인 기술기업의 조직체인 DASAR, 중국계 세계벤처기업 네트워크인 MONTE JADE 등 해외 글로벌네트워크와 해외시장 공동진출 등 협력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INKE를 세계적인 조직으로 키우고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그밖에 지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시간에는 웹사이트나 메신저를 활용한 임원들 간 적극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외지부 Delegation 초대 상담회 개최

INKE는 한국 벤처산업에 관심 있는 해외지부 회원 및 관련기업,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Delegation(대표단)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상담회,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MOU 체결, 벤처산업 관련시설 시찰, 국내 벤처기업인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 현지지부의 위상을 확립함과 동시에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협회는 비즈니스상담회를 진행하고, 국내 관련기관 및 시찰시설을 섭외하는 등 상담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Korea Venture Festival

2005



▲ 2005년 10월 현재 INKE 지부 현황(26개)



INKE 임원, 이명박 서울시장과 오찬

정기이사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로 자리를 옮겨 이명박 서울시장과 오찬을 가졌다. 이곳에는 권오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 전길자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해외에서 활약하는 벤처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명박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시대를 뛰어넘는 벤처정신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마케팅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INKE에 거는 기대도 크다"고 전언한 뒤 "투철한 기업가정신으로 한국 발전뿐 아니라 인류 발전에도 이바지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경 없는 기술의 시대를 이끌어갈 벤처기업들에게 신뢰를 표명한 이시장은 "벤처 브라운"을 외치며 오찬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

'2006 INKE Spring' 개최하는 모스크바지부 김태철 의장 미니인터뷰

내년 상반기에 개최될 '2006 INKE Spring'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러시아와 한국의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애썼던 김태철 의장의 노력이 맺은 결실에 다름없다. 행사는 러시아 내 최대 IT전시회인 SVIAZ EXPOCOMM과 연결, 2006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행사 방향은 크게 INKE총회와 한국 벤처기업, 러시아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상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회로 나뉜다. 전시회는 가칭 'Digital Life Display Future'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모스크바지부 측은 한국의 저력을 러시아인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포부이다.

"러시아는 무한도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IT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을뿐더러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입니다. 2006 INKE Spring 개최를 계기로 한국 벤처의 프론티어 정신을 러시아에 심어 한·러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태철 의장의 열정에 힘입어 내년 봄 모스크바를 수놓을 한국 벤처기업인들의 잔치는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